

## 6 장. 문화와 종교

*앞의 장에서 살펴봤던 사랑, 돈, 성취, 권력과 같은 개인적 우상이 아닌 문화와 사회의  
우상에 대한 이야기*

멜리사의 이야기 :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부채를 금융화하는 고소득 금융업자. 많이 베풀었지만  
정작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도덕적인 고민은 없었음.

돈에 대한 우상이 문제가 된것이 아닌, 문화적으로 직장에 대해 그런 질문을 던지도록 준비될 수  
없었기 때문.

수익은 선한 것인데 가짜신이 되어 절대가치로 둔갑한 사회. 그 결과 도덕과 사회가 무너짐.

**델방코가 말하는 이 시대의 근본적 희망: 하나님 -> 국가 -> 자아**

수익의 극대화가 위력적이 된 것은 '자아'의 시대라는 개념으로 설명됨. 문화를 지배하는 희망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 가짜신.

1. 종교적 우상숭배 → 거만, 우월감
  - 교리적 진리
  - 사역 성과
  - 도덕적 생활
2. 국가를 우상숭배 → 문화 제국주의
3. 자아를 우상숭배 → 사랑, 돈, 성취, 권력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한 요나 →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심**

조국 이스라엘에 충성했던 요나는 적국 앗수르의 도시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외치라는 명령에 반항했다. 사역의 성공을 원하고, 국익을 우선하고,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  
우월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 그래서 하나님은 물고기를 마련해  
요나가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니느웨의 뉘우침에 분노하는 요나 → 덩굴을 졌다 돌리심**

앗수르를 향한 혐오가 드러났다. 물고기 뱃속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임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가 다시 고개를 쳐들었다. 앗수르 민족을 살리는 "선"을 "악"이라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덩굴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 보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요나를 꾸짖으셨다.

**참된 요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나 / 예수)**

적국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피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음 / 자신을 해칠 사람들에게 다가가 섬김  
바람과 물의 풍랑 속에 내던져짐 / 십자가 위에서 최악의 풍랑 속에 내던져짐